

조선 초기 고득중(1388~1452)의 시문과 서예 연구*

오창림**

- I. 머리말
- II. 고득중 시·서의 형성배경
 - 1. 조선조 건국과 고득중의 위치
 - 2. 송설체 유입과 조선초의 서예
- III. 고득중의 시문과 서예
 - 1. 위국애민의 도학자적 시문
 - 2. 고법의 추구하고 기인적 서풍
- IV. 맺음말

국문요약

이 논문은 제주 출신으로 조선 초기 독보적인 족적을 남긴 고득중의 문예를 서예사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제주도 서예사의 첫 머리를 장식해야 할 고득중의 서예가 갖는 중요도에 비해 그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다. 게다가 그의 서풍도 송설체의 아류정도로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 초기의 문화예술계가 안평대군과 신진사대부들의 주도하는 가운데 송설체가 풍미하는 환경에서 어찌면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

* 본고는 제1회 제주학 대회 ‘제주의 시간, 그리고 사람’ 학술대회(제주대학교 탐라 문화연구원 주관, 2016년 10월 21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득중은 이러한 환경에서 그들과 함께 교류는 하되 시류에 흔들림 없이 고법을 견지하였다. 그의 후손이 편집한 『영곡유고』에서 그는 일관되게 위국애민의 선정을 주문함으로써 도학자적 이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서예에서 있어서도 당시 서단에 풍미하던 유려하고 연미한 송설체를 무조건 답습하기 보다는 오히려 당초 조맹부가 주창했던 위·진 고법의 본류에 천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방인의 한계를 극복한 고득중의 시서의 형성배경에는 탐라성주로서의 자존감과 토관자제로서 제주민에 대한 책임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득중의 서예적 성취는 내면에 위국애민의 도학자적 시문과 화이부동으로 대변할 수 있는 고법의 천착이 표리를 이루어 서권기문자향을 이루고 있다.

조선 초기 서예는 송설체의 풍미로 위·진고법이 일시 주류에서 벗어나지만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었으니 그 중심에 고득중 서예의 위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득중의 서맥이 조선 후기 한석봉으로 이어져 새로운 왕희지체가 부활하게 되는 가교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론해 본다.

주제어 : 高得宗, 靈谷, 弘化閣, 濟州名筆.

I. 머리말

고득중(1388~1452)은 조선 초기 무를 겸비한 문신이자 서예가이다. 고득중이 활동했던 조선 초기는 고려 말에 수용된 송설체가 성리학파 함께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일세를 풍미 하던 시기이다. 당시 송설체가 유행하게 되는 선봉에는 안평대군 이용이 있었고 그를 추종하는 신진사대부들의 역할 또한 매우 컸다. 연미하고 세련된 송설체는 조선 전기 궁중을 중심으로 후기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 서예사에서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득중은 세종의 특별한 총애를 입으면서 당시 예술계의 경향을 주도했던 안평대군 이용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주요 인물들과도 폭넓게 교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문이나 서예에 있어서는 당시의 시류에 편승하기 보다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古法]을 견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남아있는 고득중의 필적은 해서 2점과 행서, 초서 각 1점씩 겨우 4점에 불과하다. 대필로 쓴 「弘化閣」과 세필로 쓴 「弘化閣記」는 해서필적으로 나무에 새겨 현판으로 유전하는데 우리나라의 最古의 현판으로 알려져 있다. 행서필적은 당대 최고의 화가 안견이 그린 몽유도 원도에 품제한 7언 장편시를 쓴 육필로 일본의 천리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초서필적으로 세종임금을 모시고 강원도 적산에서 講武할 때 지어 바친 칠언율시는 신라이후 조선 중기까지의 명필 45인의 필적을 모아 엮은 『海東名跡』에 실려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 고득중이 직접 지은 시문을 휘호한 것으로 각 서체의 서사능력은 물론 그의 시·서일치의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이다. 그동안 제주도 서예사 관련 연구는 문헌자료가 부족한 탓도 있겠으나 그나마 남아있는 서사자료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특히 제주도 서예사의 첫 장을 장식해야 할 대표적인 인물로서 고득중 서예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¹⁾ 기존 학계의 연구 성과로 고득중 관련한 5편의 연구 중 2편의 논문에서 그의 서예에 대해 단편적인 언급이 있을 뿐이다.

이승연은 「근대 전북서단의 흐름에 관한 고찰」에서 “전북서예의 역사는 15C 영곡 고득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서 그가 정읍에서 활동하였고, 여러 서체 중에서 해서제액과 팔분예서를 잘 썼다”²⁾고 언급하였는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李瑢薰은 「濟州 書藝 形成의 史的 研究」에서 “弘化閣記는 제주 유생들에게 있어 松雪體의 기본 범첩 역할을 하였을 것”³⁾으로 추정된다면서 “결론적으로 고득중의 서법과 안

1) 제주도 서예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몇몇 先學들에 의한 書跡의 발굴과 함께 書誌學的 연구와 磨崖銘에 관한 조사가 대부분이다. 근래에 김정희와 현종화 등의 생애와 書風연구에 관심을 갖는 정도이다. 고득중에 관한 연구는 7편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高昌錫, 梁聖宗 譯, 「[夢遊桃源圖]에對する 高得宗의 讚詩」, 『濟州島』 6, 耽羅研究會, 1989; 高橋公明, 「高得宗研究」, 『耽羅文化』 10,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0; 金昌賢, 「고려~조선초 탐라고씨의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7, 한국중세사학회, 1999; 李瑢薰, 「濟州 書藝 形成의 史的 研究」, 水原大學校 美術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12; 이승연, 「근대 전북서단의 흐름에 관한 고찰」, 『서예학연구』 27, 한국서예학회, 2015.

2) 이승연, 앞의 논문, 2015, 429-430쪽.

平體가 똑 같은 서풍을 유지하고 있다”⁴⁾고 언급하였다. 한편 오세창은 『國譯槿域書畫徵』에서 “고득종의 시문과 서예가 모두 古法에 逼真하다”⁵⁾라고 평하였는데, 이는 고득종 서예의 연원이 위·진 고법에 잇닿아 있으며, 당시의 시대사조인 송설체나 안평체와는 다름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오세창의 평가에 주목하여 고득종의 문예를 서예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여말선초의 왕조교체시기 송설체의 유행과 사회문화적 환경 특히 서예정책과 동향을 파악하고, 조선왕조실록 등 사료를 근거로 고득종의 시서의 형성에 영향을 준 배경 등을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영곡유고』에 전하는 고득종의 시문의 특징과 관점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그의 시문에서 드러난 관점이 그의 서예작품에 어떻게 투영되었으며 當代 유행서풍인 송설체·안평체와 비교를 통해서 기존 연구 성과의 한계를 짚어보고 후대의 평가를 통해서 고득종 서예의 연원 또는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 면모를 밝혀보고자 한다.

II. 고득종 시·서의 형성 배경

1. 조선조 건국과 고득종의 위치

영곡이 살았던 세상은 왕조가 바뀌는 격변의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개국 초기는 고려말기의 李穀·李穡부자, 李齊賢, 崔瀾 등의 중국문화 도입으로 文風이 약진함에 따라 서예도 크게 진흥을 이루었다. 여말선초 왕조 교체기는 비록 왕조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무혈혁명으로 왕권을 넘겨받았고 관료나 문인들도 별 변동 없이 새 왕조로 이어져서 바로 태종, 세종의 문치시대를 이루었다.⁶⁾ 조선왕조 개

3) 李瑤薰, 앞의 논문, 2012, 34쪽.

4) 李瑤薰, 위의 논문, 2012, 49-51쪽.

5) 吳世昌, 『國譯 槿域書畫徵』上, 東洋古典學會, 시공사, 1998, 186쪽. “常帶修文殿提學하니 文筆이 皆逼真하다(海東號譜)筆跡摸刊(海東名跡)(草露貫珠).”

6) 任昌淳, 『高麗末 朝鮮初의 書藝』, 예술의 전당, 1996.

창 초기에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학을 숭상하는 ‘개혁파 신진유신’들이 정치참여로 그들이 주장하는 문화적 원리상의 통치를 내세웠으나 아직 주자학의 기반이 탄탄하지 않았고 관료들 중에는 오히려 시문, 서화의 대가가 많이 나타나 예술분야의 활동이 활발하였다.⁷⁾

한편 왕조교체기에 제주도는 대명외교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牛馬의 주생산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제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주지역에 대한 지배권 강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의 유력 층에 대한 회유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주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회유책은 고려 말부터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곡이 태어나기 2년 전인 1386년(우왕 12) 7월 제주인이 자주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제주에 왔던 李行 등이 이듬해 4월 성주 高臣傑과 그의 아들 高鳳禮를 데리고 개경으로 상경하였다. 이는 제주인이 더 이상 중앙정부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제주의 지배층을 인질로 삼는 한편, 이들에게 관직으로 회유함으로써 제주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지방의 유력층들은 점차 서울에 올라가 在京士族 세력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이를 전후해 高鳳禮의 동생이며, 고득중의 아버지인 高鳳智도 재경관인으로 진출하였다. 또 고봉례의 아들 高尚溫, 高忠彥, 高俊, 文忠世, 文方寶, 梁深 등이 재경관인으로서 士族化 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武官으로 종사하며 왕을 모시거나 호위하였다. 조정에서는 제주출신 재경관인들에게 쌀이나 의복, 궁은 등을 내려주는 등 제주인에 대한 남다른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⁸⁾

고득중은 본관이 제주, 탐라국 개조 高乙那의 60세손이고, 耽羅星主 高末老의 15세손으로 부친은 上護軍 鳳智이다. 자는 子傅이고 호는 靈谷 또는 圓山이며 시호는 文忠이다. 1388년(우왕 14) 제주 교래리에서 태어

7) 손환일, 『고려말 조선초 조맹부체』, 학연문화사, 2009, 91쪽.

8) 「太宗實錄」卷28, 太宗 14年 7月 19日條, “賜前司憲監察權蹈等二十五人及第, 以蹈爲司諫院右獻納.” 賜蹈及李隨、高得宗宮醞各四十瓶。隨, 兩大君之傅也; 得宗, 耽羅人, 故有是賜; 김동진, 「제주인의 삶- 제주史 순례⑨」, 『함께하는 도정』, 2009, 11-12쪽.

나 일도리(현 오현단)에서 유년기를 보냈다.⁹⁾ 그의 나이 10세 때 재경관인이었던 아버지 鳳智를 따라 상경하여 학교에 입학하였다. 1411년(태종 11) 부친상을 당하자 산소 옆에 초막을 짓고 예를 다하니 그의 효행이 천거되었다. 1413년(태종 13) 蔭職으로 直長에 진출하고, 이듬해(태종 14)에 문과에 을과로 급제함으로써 그의 정치역경이 시작되었다. 1417년(태종 17)에 고득중은 감찰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못하고 성균주부로 좌천되는 일이 있었다. 그 과정에 제주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왕의 인척을 부추기면서까지 고득중에 대한 대간들의 차별적 견제가 있었다.

고득중을 成均注簿로 삼았다. 고득중은 제주사람이다. 감찰을 제수하였으나, 수십 일을 지난 뒤에 告身을 署經하였고, 本房에서 또 臺長에게 고하여 그를 탄핵하여 나오지 못하게 한 까닭에 좌천하였다.¹⁰⁾

이 사건은 고득중으로 하여금 대간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품게 하였고, 다가올 그의 정치행로의 고비마다 대간들과 잦은 갈등을 빚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재경관인 중에서도 특히 고득중은 제주출신답게 海運¹¹⁾과 馬軍政¹²⁾에 관한 조예가 남달랐으며, 시문과 서예는 당대에 손꼽을 정도로 출중하였다. 이렇듯 다재다능한 자질을 갖춘 영곡은 세종의 至治 시대를 만나 그의 응지를 펼치면서 정치·외교·행정전반에 두루 족적을 남겼다.

9) 고득중의 출생지로는 ‘조천읍 교래리’ 설과 ‘제주시 일도리 가락천 인근 교동’ 설이 있다.

10) 『太宗實錄』, 卷33, 太宗 17年 閏5月 11日條, “以朴矩爲江界兵馬都節制使兼判江界都護府事, 高得宗 成均注簿. 得宗, 濟州人也. 除監察, 閱數旬而後, 署經告身, 本房又告于臺長劾之, 使不得出, 故左遷.”

11) 『世宗實錄』, 卷119, 世宗 30年 3月 16日條, “左議政河演以下皆曰: “轉運使, 當由水路. 初以得宗爲轉運者, 以慣於海道也, 宜令得宗常由水路而行. 若有不得已徑行審視之處, 則隨宜陸行便.” 上從之, 下諭于得宗.”

12) 『世宗實錄』, 卷30, 世宗 7年 10月 26日條, “傳旨兵曹 ‘馬政軍國重事, 須盡心牧養, 以致蕃息. 茲命漢城府尹金素, 大護軍高得宗往江華, 俾審牧馬之場, 如其水草有餘, 可作牧場, 馬匹過冬, 不至倒損, 則欲將各官分養馬, 合牧于此. 如此, 庶幾各官之弊除, 而馬政修矣, 惟爾兵曹, 悉加訪問以聞.’”

2. 송설체의 유입과 조선초의 서예

조선은 건국 이후 정치·사회·문화 등 제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여말에 등장하여 조선을 건국한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중심 이념으로 하는 조선의 문화 주체자로서 자부심과 사명의식이 대단하였다. 이들은 성리학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개혁뿐만 아니라 예술 영역도 새롭게 인식하고 해석하였다.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조가 조선의 예술의 성격을 다양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서예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리학의 영향은 서풍의 변화를 견인하게 된다.

조선은 고려와 달리 학교에서 서예박사를 두어 교육하거나 과거과목의 하나로 서예를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학교나 해당관청의 필요에 따라 관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 내용과 과목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그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선왕조는 서예정책의 일환으로 법첩을 수집하고 간행하여 배포 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왕조에서 생긴 새로운 현상이었다. 이전에는 주로 집자형태로 행해졌던 것이 인쇄술과 제지술의 발달로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역대 왕들은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역대 명첩을 수집하고 간행하면서 좋은 활자를 주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세종으로부터 문종·세조·성종 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¹³⁾

이러한 서예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첩 수집과 간행에 관한 세종조의 사례를 보면, 1435년(세종 17)에 許租가 아뢰기를 “지금 承文院 관원으로서 글자를 쓰는 자가 楷正 하지가 못하니 좋은 體를 보지 못한 때문입니다. 좋은 체는 썩나라 글씨 같은 것이 없사오니, 원컨대, 구하여 본받게 하소서.”라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글씨 쓰는 것에 대하여는 일찍이 유의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雪菴體를 숭상하는데 조금 기이하고 특별하기는 하지마는, 體를 얻지 못하면 마침내는 글자 모양이 대단히 陋하게 되니, 썩나라 글자 같은 것이 없다. 내가 장차 구하여 주겠다.”고 하였다.¹⁴⁾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말선초의 송

1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서예문화의 역사』, 경인문화사, 2011, 183쪽.

설체가 풍미하는 세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晉體에 관한 어떤 흐름의 여운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평대군 이용(1418~1453)은 자신이 주장한 조맹부의 필적을 중심으로 『匪懈堂集古帖』을 간행하기도 하였다.¹⁵⁾ 이러한 조선초기의 문화정책과 맞물려 전개되는 서체의 변화 양상을 보면, 고려 말에 수용된 송설체는 신진 사대부를 중심으로 수용되었고 李鼎 등 송설체의 대가를 배출하게 된다. 여말의 송설체의 수용은 이전의 신라 이후 晉·唐 古法으로 여긴 왕희지체와 구양순체 위주의 서풍에서 일변하는 서예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조선개국이라는 전환기적 환경에서 인재등용의 한 기준이 되었던 서예에 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

門蔭과 功蔭의 子弟를 敍用하는 법은 이미 정해진 법이 있으나, 다른 자제는 벼슬에 나아갈 길이 없사오니, 이제부터는 門蔭과 功蔭의 子弟외에, 벼슬이 없는 자의 자제로서 나이가 18세 이상의 才幹이 있는 자도 또한 大小官으로 하여금 천거하게 하되, 아울러 親祖父와 外祖父의 職名을 기록하여 本曹에 올리게 하여, 書藝·算學·律學로써 그 能否를 시험해서 敍用하도록 하여 요행을 바라는 길을 막으소서.¹⁶⁾

이 기록은 태종 5년 이조판서 李稷의 인재등용에 대한 상소문인데, ‘身言書判’을 인재등용의 기준으로 삼았던 당시의 서예에 대한 인식정도가 ‘書如其人’의 관점에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문화예술에 관한 남다른 식견과 애정을 정책으로 반영하였다.

14) 『世宗實錄』, 卷68, 世宗 17년 4월 8日條, 稠仍啓曰: “今承文院官寫字者, 不楷正, 良由未見好體也. 好體莫如晉字, 願求之, 使得取法.” 上曰: “予於書字, 曾不留意, 我國人皆尚雪菴體, 稍奇特, 然未能得體, 則其終字樣甚陋, 莫如晉字, 予將求以賜之.” 雪庵은 중국 元 나라의 승려·서예가인 李溥光의 호이다. 그는 해서대에 능하였다. 고려 공민왕이 雪庵體를 본받아 賜額懸板을 쓰는 등 조선시대까지 현관 글씨에 영향을 끼쳤다.

15)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경인문화사, 2011, 184쪽.

16) 『太宗實錄』 卷9, 太宗 5年 2月 9日條, “門蔭功蔭子弟敍用之法, 已有成規, 他子弟未有仕進之路. 自今其門蔭功蔭外, 無職子弟年十八以上, 有才幹者, 亦令大小官薦舉, 并錄內外祖父職名, 呈本曹, 以書算律, 試其能否, 方許敍用, 以杜僥[倖]之門.”

1537년 「중종실록」에는 세종의 서화예술에 관한 애정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있다.

세종 조에는 정치를 도모하는 이외에 비록 百工技藝라도 장려하고 권장하지 않음이 없어서 무릇 百工匠이 지극히 정교하였습니다. 書畫小技에 이르러서도 조금이라도 유능하고 이름 있는 자가 있으면 포상하고 장려하고 권면하였기에 사람들이 모두 흠모하고 본받아 각기 정교함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能書, 能畫자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天使(明의 大使)가 (우리나라의) 그림을 구하고자 할 때에도 그림을 잘 그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때맞추어 그림을 증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공기예가 대체로 이와 같으니 심상하게 볼 수가 없나이다.¹⁷⁾

세종의 착실하고 근면한 통치 기간에는 예악과 문물이 갖추어져 있었고 백공기예가 모두 그 능력을 다했습니다. … 비록 잡학이라고 해도 각기 그 맡은 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畫工에 관한 일을 보더라도 세종조의 圖畫는 지금 보아도 가지런하고 뛰어난다. 書冊이나 印紙도 역시 모두 아름답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오히려 느슨하게 하지 않았습니다.¹⁸⁾

이러한 기록은 세종 때 서화를 비롯한 예술문화가 후대에 얼마나 높이 평가되고 귀감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세종조 至治의 중심에는 편견 없는 인재 등용 그리고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등 자칫 천하고 보잘 것 없게 여길 수 있는 작은 재주에 대한 세종의 남다른 애정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세종조의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고득중이 득의의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세종의 변방인에 대한 우대정책과는 달리 대간들의 변방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은 고득중의 일생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17) 「中宗實錄」卷84, 中宗 32年 4月 13日條, “…當世宗朝, 圖治之外, 雖百工技藝, 莫不獎勸, 故凡百工匠, 極致精巧, 至於書畫小技, 稍有能名者, 莫不褒獎勸勉, 人皆慕效, 各致其精, 故能書能畫者, 不可勝數. 頃於天使求畫之時, 無一人精畫者, 故不能趁時畫贈. 百工技藝, 類皆如此, 不可視爲尋常也…”

18) 「中宗實錄」卷88, 中宗 33年 10月 5日條, “…世宗孜孜勤勤之治, 而禮樂文物俱備, 百工技藝, 咸精其能也…以畫工事觀之, 世宗朝圖畫, 比今觀之, 則頓殊也, 書冊印紙, 亦皆美矣. 雖小事, 尙不緩弛…”

Ⅲ. 고득종의 시문과 서예

1. 위국애민의 도학자적 시문

고득종은 근본에 힘써 효행이 지극하였고 시문에 있어서도 특출하여 태종, 세종, 문종 삼대에 걸쳐 文治에 참여하였다. 두 번의 과거급제에서 드러나듯 문장과 시에 있어서도 뛰어났으니, 徐居正은 “제주 사람으로서 문장과 사업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자는 平章事 高兆基로부터 아래로 高得宗先生, 左尹 高台弼 4형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문장과 사업으로 이름을 떨치고 입신하여 청현직을 지냈다.”¹⁹⁾고 하였다. 고득종의 문집은 전하지 않으나 1934년 후손 高東是가 그의 유고를 편집하여 간행한 『靈谷遺稿』 석인본이 남아있다. 『영곡유고』는 권두에 李喜薤의 서문과 권말에 高東是의 발문이 있고, 권1은 시 15수, 권2는 表 11편, 奉狀 2편, 書 2편, 권3은 教冊文 4편, 序 1편, 記 1편, 公移 6편, 권4는 부록으로 실록·찬·신도비명·영곡재중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희진은 「영곡유고서문」에서 세종의 총애와 僚友의 追崇 그리고 고장의 유림들을 감동시킬만한 그의 시문을 이제라도 진작하고 닦아서 화민성속의 공로를 기려야 하지 않을까 반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至治의 교화가 밝았던 시기는 英陵(世宗의 陵號) 때가 가장 융성하였다. 그때에 천운이 바뀌려함에 그 일에 모여든 이는 모두 다 한 시대의 이름난 석학들이었는데 영곡공도 그 대열에 참가하였다. 공은 남쪽의 먼 바닷가에서 태어났지만 (중략) 벼슬은 재상의 위계에 올라 위로는 임금의 특별하고 두터운 총애를 받았고, 아래로는 僚友의 追崇함을 얻었다. 그 德化와 義理의 남은 자취가 한 고장을 충분히 감동시킬 만하다. 오래도록 그의 시문을 닦지 아니하여 버려두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고요하게 버려둘 수 있겠는가.²⁰⁾

19) 「四佳集」 卷2 濟州觀德亭重新記, “...此州之人以文章事業鳴世者 自高平章兆基而下 至于高先生得宗左尹台弼四兄弟 皆立揚清顯...”

20) 李喜薤, 「靈谷遺稿序文」, “本朝治教之休明最稱英陵盛際 當時得風雲之會者皆一世名碩 而靈谷高公亦例焉...中略...位登宰輔 上而聖春特重 下而僚友咸推...中略...其德義風韻固足以聳動一方 雖世不磨今何寥寥焉.”

1425년(세종 7) 4월에는 그가 선위별감의 자격으로 제주목사 金素가 보낸 檢副正 車用利·安邦顯 등과 進上別馬 20필, 貢馬 10필을 신고 육지로 향해 가다가 火達島에 이르러 대풍을 만나 배가 부서져 차용리와 안방현 등 같은 배에 탄 격군 8명 그리고 말 30필이 모두 물에 빠져 죽었는데,²¹⁾ 오직 고득중만이 구사일생으로 귀향하였다. 이때의 감회를 쓴 것으로 보이는 「歸觀濟州遇風漂海作」의 시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환하는 돛배는 큰 바람을 못 이기고
갈 길 막아선 흰 파도는 하늘에 닿았네
이 몸 죽어 물고기 밥 된다면
나라 위해 충성할 꿈 일시에 사라지네.²²⁾

열 폭의 돛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고래 같은 파도로 동서를 분별하지 못하는 절박했던 당시의 사정 속에서도, 만약 여기서 죽어 물고기의 밥이 된다면 나라에 충성을 맹세했던 꿈이 한낱 물거품이 된다고 안타까운 심사를 표현함으로써 장부의 의연한 기상과 신하된 자의 도의를 엿보게 한다.

또 ‘見古城’이라는 제목의 칠언절구를 보면,

백면서생들까지 이 성을 지키려고
아까운 목숨을 깃털마냥 가벼이 여겼어라
일찍이 인의로 민심을 복종케 하였기에
젊은이들 환호하며 천지개벽 앞장섰네.²³⁾

이 시에서 ‘古城’은 고려의 옛 황성일 텐데 과거에 대한 회상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민심을 仁義로 복종시킨 왕도정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春亭 卞季良에게 주는 글」에서는

21) 『世宗實錄』, 卷28, 世宗 7年 4月 19日條, “濟州牧使金素遣檢副正車用利、安邦顯等押領進上別馬二十匹、貢馬十匹、隨宣慰別監高得宗回還、船至火達島、因大風敗船、用利、邦顯及同船格軍八名、馬三十匹皆溺死”

22) 『靈谷遺稿』, “歸帆十幅不勝風 白浪連天不辨東 此身若死葬魚腹 報國忠誠一夢中”

23) 『靈谷遺稿』, “白面書生此守城 殺身滅性鴻毛輕 早推仁義人心服 壯士歡呼天地傾”

“원대한 근심이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日用動靜이 도가 아닌 것이 없어야 한다. (중략) 이 고을 백성이 포학을 피해서 다시 仁明을 만나는 것”²⁴⁾고 하여, 일상의 생활은 道에 준거²⁵⁾해 생활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백성들에게는 어질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위정자의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황해도 해주목의 제영조에도 고득종의 자취가 남아있는데 백이·숙제가 굶주려 죽은 곳인 수양산은 산세가 비슷한 해주의 수양산에도 남겨진 유품이 있는듯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진다고 했다.²⁶⁾

괴로운 세태 큰 물결이 동쪽 나라에 안정되니
 五江이 편안한 것은 태산의 공로로다.
 삼천리 강산이 눈앞에 벌려 있으니
 팔한에 구한이 더하여 한 식구가 되었네.²⁷⁾

「上國觀風」이라 題한 이 시는 세종 21년 정조사 李明德과 함께 작자가 관암사로 명나라에 갔을 때의 감회를 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명나라에 대한 사대교린의 의리가 탐라가 조선에 병합된 것이 다를 것이 없다는 탐라성주의 후예로서 현실인식의 복잡한 심사를 표현하고 있다.

고득종의 문장 중에 명문으로 꼽을 만한 「홍화각기」(그림 1)는 제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애민위국이 잘 드러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官營이 불에 타자 주거할 곳이 없음을 탄식하고, 무리를 시켜 무너진 절간의 재목과 기와를 모아서 집을 짓고, 그 집 수는 모두 206칸이며, 집마다 독립되어서 서로 붙어있지 않게 한 것은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이다…그 계획을 세워 일을 해내고 위치를 정하며 제작을 마땅하도록 한 것은 모두 공의 지시와 계획에서 나왔다. 공이 하루는 閣위에 나와 앉아 고을안의 父老들을 소집하여 그 낙성식을 하면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제주가

24) 『靈谷遺稿』, 與下春亭季良 “…遠慮遠慮人之生也 日用動靜莫非道也……此州赤子得避暴虐而更逢仁明…”

25) 『禮記』 第三十一, 「中庸」,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論語』, 「述而篇」, “子曰, 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遊於藝.”

2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3 黃海道 海州牧 題詠條, “萬古夷齊地 遺風感慕深.”

27) 『靈谷遺稿』, “苦世波蘭定海東 五江之固泰山功 三千里內眼前列 八有九韓一掌中.”

고을이 이뤄질 때에 큰 바다를 북으로 배어 호호탕탕하여 한눈에 천리이고, 남으로 높은 산을 마주하여 울울창창하니 사철이 한 색...돌이켜 보면, 옛날 누각 이름에 萬景이 있었던 곳이 여기인데, 지금 누각이 있게 되었으니, 마땅히 ‘萬景’이란 이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고 하였다. 공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내가 閣을 세운 것은 경치를 즐기려고 한 것이 아니니, 풍경을 구경하는 누대로 지은 게 아니다. 옛날 周文王²⁸⁾ 때 周公은 나라 안을 다스리고 召公은 나라 밖을 다스리면서 교화가 사람들에게 미쳤는데, 마치 바람이 불어 움직이듯 점점 은혜입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사람들이 德化에 고무되어 그 기질이 변하고 바뀌지 않음이 없었는데, 어찌 두 공이 弘化를 이루는데 보좌한 것이 아니겠는가?...무릇 分憂하는 자가 날마다 이 閣에 오르면, 방탕하게 놀아서도 안 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도 안 되며, 위임받은 책임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항상 임금의 교화를 널리 퍼서 백성들의 정서에 드러나도록 마음을 쓴다면, 周시대의 정치를 오늘에 다시 볼 수 있을 것이고, 제주의 백성들은 무궁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즉 어찌 弘化로 이 閣에 이름을 붙이지 않겠는가?”²⁹⁾



[그림 1] 홍화각기(고득중, 1435년, 263cm×67.5cm,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15호, 제주三聖祠소장)

記文에서 우선 제주도의 지형과 역사를 간략히 서술하고 나서 세종

28) 관각에는 周文王으로 되어있으나, 周成王의 오기인 듯하다.

29) 『靈谷遺稿』, 「弘化閣記」, “...適營失火 歎無所居 只役髡頂者 及入番之輩 乃取破寺材瓦 先起燕寢之室 琴堂浴房庖廚廊舍...凡爲屋計共二百有六間 而每屋別起不相接連 所以備火災也...其經營位置 制作得宜 皆出於公之指畫矣 公一日出坐閣上 召集鄉中父老 以落其成 且圖所以名之也 或有言曰 濟爲州北枕巨海 浩浩蕩蕩 一日千里 南對崇岳 鬱鬱葱葱 四時一色...顧眄之間 古有樓而名 萬景者此也 幸今有閣 宜復萬景之名 公曰不然 予之建閣 非爲翫景也 非爲游觀也 昔文王之時 周公治於內 召公治於外 化之及人 如風之動 漸之被之暨之 而當世之人 莫不鼓舞於德化 變易其氣質 豈非二公贊襄弘化之致歟...凡分憂者 日登此閣 無佚遊無縱欲 思盡委任之責, 常以弘王化達民情爲心, 則周之治, 可復見於今日, 而濟之民, 當受福於無窮矣. 然則盖以弘化, 名此閣乎...”

임금의 제수에 대한 심려를 완곡하게 드러내었다. 그리고 최해산의 인품과 선정을 찬양하면서도 그의 실화와 복구 및 치적 등은 사실대로 묘사하였다. 다음으로 홍화각 등 관아 이백여섯 칸을 건립한 내력과 홍화각이라 명명하게 된 연유를 결연하면서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홍화각기」는 변방인으로서 임금의 총애를 받았던 고득중이 제주인으로서 자부심과 백성을 위한 애민선정의 마음을 담아 유려하게 써내려간 아름다운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봉장의 「濟州賑恤狀」은 임지인 제주목에 당도한 후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 구휼한 내용을 기록한 글로, 백성을 賑救해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한편, “興學校, 勸農商, 宣揚教化”하니 모든 백성 중에 임금의 덕택임을 환호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하였다. 公移에서는 당시 정부의 시정 방침에 대한 사항으로 ‘興學校·興禮義·豎城郭·選將帥·立馬政·修軍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바 고득중의 문장과 시를 통해서 일관되게 드러내는 점은 위국애민하는 도학자적 면모라고 할 수 있다.

3. 고법의 추구하고 기인적 서풍

고득중의 두 차례에 걸친 과거 급제는 그의 문장과 글씨의 재주가 범상치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석익은 「파한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 고을에서 부자·형제가 등과한 사람은 대체로 적다. 오직 判尹 高得宗과 그 아들 中樞 高台弼, 奉常 高台鼎, 司諫 高台翼이 함께 문과에 등제했는데, 判尹은 重試를 奉常은 壯元을 하였다.³⁰⁾



[그림 2] 홍화각, 고득중, 1435년,
제주三聖祠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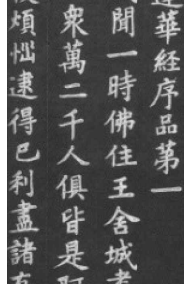
고득중의 필적은 현전하는 것이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4점 가운데 해서가 2점, 행서와 초서가 각 1점씩 남

30) 金錫翼, 「破閑錄」, 上, “本州父子兄弟登科者蓋寡 惟高判尹得宗及 其子中樞台弼 奉常台鼎 司諫台翼 俱登文科 而判尹重試 奉常壯元也.”

아 있어서 고득중 서예의 수준과 면모를 살피는데 무난하다 할 수 있다.

1) 「弘化閣」과 「弘化閣記」

「홍화각」(그림 2)와 「홍화각기」는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필적이다. 이 현액은 1435년(세종 17) 고득중의 나이 47세에 쓴 득의의 작품으로 “임금의 근심을 나눈 자가 王化를 넓히고 德化로써 백성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한껏 살려서 곧고 굳센 필치와 소밀의 조화를 온전히 살려 휘호하였다. ‘弘’은 용필에서 영실기암의 오백장군 기상을 담은 듯 굳센 필치로 쓰면서 결구는 태평양 너른 바다처럼 너럭하게 하였으며, ‘化’에서 획수가 적은 글자임에도 가장 너른 공간을 차지하여 제주 오름의 역세에 이



[그림 3]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보물 269호, 14세기 후반, 마곡사소장.

는 바람처럼 날렵하면서도 매서운 듯 자유스러우면서도 가볍지 않게 표현하였고, 마지막으로 ‘閣’에 이르러 바람도 셀 틈 없는 듯이 짝 찬 짜임새로 튼튼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용필과 結字의 疏密³¹⁾이 조화로운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김석익은 이를 평하여 “문장과 글씨가 정말로 古人の雅趣에 가깝다. 지금 「홍화각」 석자는 공의 솜씨인데 맑으면서 원만하고 노련하면서도 굳센 필치로 그의 사람됨을 상상할 수 있다”³²⁾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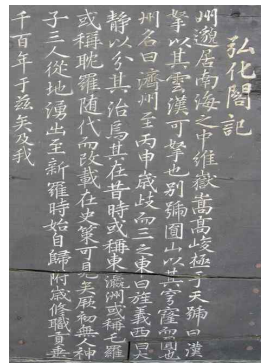
홍화각은 1435년(세종 17) 겨울에 제주안무사 崔海山이 세운 건물이다. 홍화각을 세운 최해산은 고려 말 화약을 발명한, 崔茂宣의 아들로 부친의 뒤를 이어 1431년 左軍同知摠制로 화포와 철우전 등을 제조하여

31) 包世臣, 정충락 옮김, 『藝舟雙楫』, 미술문화원, 1986, 32쪽. 포세신은 結字에 관해서 청대의 금석서예가 鄧石如의 이론을 제일로 들고 있다. ‘자획이 성근 宥(疏)은 말을 달리게 할 수 있도록 넓게 하고, 密한 곳은 바람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채워 쓰고, 항상 白을 가늠하여 黑을 놓는다’ 이 말은 획을 배치함에 있어 검은 먹을 보기보다 획에 의해 나누어지는 공간을 보아야 한다는 뜻이며, 공간이 많다고 하여 먹으로 채우려 획을 굵게 하거나, 획이 복잡조밀하다고 하여 얇게 쓰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32) 金錫翼, 「耽羅人物考」, “...文章書法直逼古雅 今弘化閣三字寔公手蹟 清圓着勁可以想像其爲人...”

세종 임금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다. 그러나 1433년3월 波猪江의 여진족을 토벌할 때 좌군을 맡았는데 軍機誤失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다. 그때 마침 제주는 목사 李鵬의 임기가 끝나 1434년(세종16) 6월 朴安臣이 발령되었으나 처병을 핑계로 사임하므로 최해산이 제주목사로 도임하게 되었다.³³⁾ 당시 제주지방은 잦은 왜구의 침입과 계속되는 가뭄으로 牛馬賊이 출몰하였는데 밀도살자 가족 650명을 평안도 등지로 이주시키고 있었다. 최해산은 1434년 8월에 발령을 받고 10월에 도착하여 난제를 수습하는 중에 관부가 실화로 불타고 文籍이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이때 예조참의를 지낸 고득중이 고향으로 돌아와 토호들의 협조를 구하여 홍화각을 비롯한 206칸이나 되는 관아를 짓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최해산의 요청을 받아 홍화각기를 짓고 현액을 쓴 것이다. 홍화각은 병화로 소실된 후 몇 차례 중건과 중수를 거쳤으며, 현재의 건물은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던 것을 1999년에 복원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다행히 홍화각 현판은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초기 현판의 서체와 제작기법 및 고득중 연구에 매우 귀중한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1월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었다.

한편 제주도가 문화재 지정을 앞뒀던 지난 2001년 8월 충북대학교 목재연료소재은행에 의뢰해 방사성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1435년 홍화각 초창 당시의 편액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국보1호 승례문 현판(1474년)보다도 30년 정도 앞서 제작된 것으로, 현존하는 국내 현판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판 재질은 본판의 경우는 제주 특산종인 비자나무, 뒷면 세로로 덧댄 나무는 벗나무로 밝혀졌다.³⁴⁾ 서체는 1434년(세종 16)에 주성된 금속활자 갑인자³⁵⁾서체와 동일한 서체로 보는 것이 학계의



[그림 4] 홍화각기 부분

33) 『世宗實錄』卷65, 世宗 16年 8月條 참조.

34)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no=124935>.

35) 甲寅字는 1434년(세종 16) 7월에 庚子字를 녹여서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 활자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는 고득중의 서체연원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그림 3]은 고려 14세기 후기 사경이 가장 성숙했던 시기의 감지은니 법화경 사경작품이다. [그림 4]의 경우 고득중의 작품인데, 좌우보다는 상하로 긴 체세라든지 一, 人, 千의 체세에서 기울기와 곧은 획, 그리고 강철 같은 굳건한 필치에서 고려사경체의 遺風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조맹부의 대표작인 해서작품(그림 5)과 안평대군의 사경작품(그림 6)을 보면 고득중의 글씨와 전체적인 글자의 체세와 결구에서 엄연히 차이를 알 수가 있다. 필획에서 거의 모든 가로획이 부드러운 곡선화가 정착되어 있어서 고득중의 곧고 굳센 필획과 대비된다. [그림 5]의 경우 關, 高의 결구가 [그림 4]의 關, 高와 비교하면 劃質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림 6]에서도 千, 我的 결구와 체세에서 [그림 4]와 역시 차이를 알 수 있다. 홍화각기의 서체 또한 홍화각 현판글씨와 같은 필치로 쓰였다. 행과 열을 정확히 맞추는 사경의 형식과 다르게 담담하면서도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이러한 고득중의 서사능력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실려 있다.



[그림 5]
현묘관중수삼문기,
조맹부.

[그림 6]
지장보살본원경,
안평대군.

信寧宮主 辛氏가 태종을 위해 복을 빌다. 前判事 柳季聞·前舍人 權孟孫·병조 정랑 崔興孝·집현전 副校理 安止·奉常少尹 高得宗에게 명하여 佛經을 文昭殿의 佛堂에 금으로 쓰게 하였으니, 신녕궁주 신씨가 太宗을 위하여 복을 빌고자 한 때문이었다.³⁶⁾

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아름답다. 東晉의 書聖 王羲之를 가르친 李充의 어머니 衛夫人의 글씨체와 비슷하다 하여 ‘衛夫人字’라 일컫기도 한다.

36) 『世宗實錄』, 卷21, 世宗 5年 9月 21日條, “命前判事柳季聞, 前舍人權孟孫, 兵曹正郎崔興孝, 集賢殿副校理安止, 奉常少尹高得宗, 金書佛經于文昭殿佛堂. 信

위 내용은 고득종이 태종의 사후 극락왕생을 위한 왕실발원 사경작업에 참여 했었다는 기록이다. 왕실발원 금자사경의 경우 한 치의 실수를 허용치 않았던 사경의 전통에 비춰 볼 때, 고득종은 이미 당대 최고의 해서 필사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그의 나이 36세였다. 다만, 사경작품의 진적을 볼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만약 고득종의 사경체를 볼 수 있다면 아마도 홍화각기의 필치로 행과 열을 맞추고 장중함을 더한다면 [그림 4]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2) 題夢遊桃園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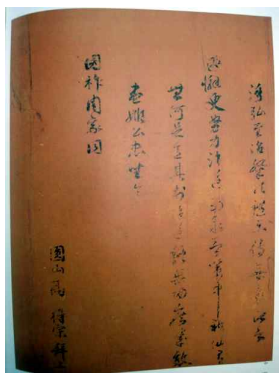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의 꿈에 본 경치를 안견이 3일에 걸쳐 그려낸 그림이다. 여기에 안평대군의 제서와 발문, 그리고 1450년(세종 32) 정월에 쓴 시 한 수를 비롯해 20여 명의 당대 명유문사들과 1명의 고승이 쓴 제찬을 포함해서 모두 23편의 찬문이 곁들여져 있다. 안평대군과 더불어 찬문을 남긴 인물은 申叔舟, 朴堧, 金宗瑞 등으로 모두 안평대군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다. 안견의 그림과 이들의 찬시문은 현재 2개의 두루마리로 나누어져 표구되어 있다. 첫 번째 두루마리에 박연의 시문까지, 두 번째 두루마리에 김종서의 찬시부터 崔脩의 찬시까지 실려 있다. 안평대군의 발문은 陶潛의 「桃花源記」의 형식을 원용한 것으로 보이며, 발문과 찬시문은 각자의 자필로 쓰여 있어 그 내용의 문학적 성격은 물론 서예사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몽유도원도」의 23명 제찬시의 원래의 순서를 보면 고득종의 위상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몽유도원도」가 일본학계에 알려지면서 1929년 처음으로 학술적으로 소개했던 나이토 고난(內藤湖南)의 논문을 보면 현재의 순서와는 달리 6번 고득종부터 12번 최항까지가 앞에, 그리고 그 뒤를 이어 1번 신숙주부터 5번 김담까지의 시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13번 박팽년부터 21번 최수까지는 그 다음에 실려 있었다고 보인다. 현재의 순서로 표구된 것은 마유야마 준키치가 1947년 「몽유도원도」를 사서 도료로 가져와 표구한 때였으므로 1929년 나이토가 논문을 썼을 때는

본래의 순서대로였을 것으로 보여 진다. 사실상 시문들 중에서 고득중의 것이 가장 마멸이 심한데, 이것은 그림은 별도의 편액으로 되어 있었고 시문 두루마리 중에서 본래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쉽고 가장 많이 훼손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³⁷⁾ 몽유도원도는 일본 나라현의 테리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 중이며, 현재 중요문화재 회화 제1152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림 7]은 고득중의 나이 62세에 쓴 행서작품으로 「제몽유도원도」의 마지막 부분이다. 여러 찬시문 중에서도 맨 앞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다른 찬시보다 손때가 많이 묻고 보존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안으로 글자체를 구분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 유려하면서도 활달한 생동감이 넘치는 운필을 감지할 수 있고 넉넉한 행간이라든지 거침없이 이어지는 자간의 장법을 구사한 점으로 볼 때 노년의 원숙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제찬시의 내용을 보면, 무릉도원의 경계와 안평대군을 찬양하면서도 단종을 도와 주공과 같은 명신이 되시라고 애둘러 충고하고 있다. 주공이 어린 성왕을 보좌하여 주나라의 찬연한 예악문물을 완성시켜 현재까지도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다는 고사를 인용하기도 하고 또한 신선의 유무를 논하는 것은 국가경영에 전혀 공효가 없으니 쓸데없이 허송세월하지 말 것을 충고하면서도 고사를 인용하여 전혀 거부감 없도록 꾸미면서 자재한 忠諫의 수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흥화각기에서 보여준 도학자적인 위국애민의 정신을 읽을 수가 있으니 그의 위국충정이 어떠한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충정이 전해져서 여러 제찬시의 첫머리에 장식된 것은 아니었을까 싶다.



[그림 7] 제몽유도원도, 고득중, 1450년, 일본테리대소장.

37) 안휘준, 『안견과 몽유도원도』, 사회평론, 2009, 123쪽.

3) 草書七言律詩

『해동명적』³⁸⁾에 실려 있는 이 작품(그림 8)은 고득종의 나이 42세에 쓴 것으로, 다소 긴 시의 제목에서 파노라마처럼 당시의 상황을 눈에 선하게 그릴 수 있는 작품이다. “경술년(1430, 세종 12) 봄에 임금을 모시고 강원도 적산에서 강무할 때, 환호하는 병사들의 왕성한 사기와 필력은 군기의 화려함을 보고는 서로 더불어 임금의 성덕을 칭송하였다. 기쁘고 경사스러움을 가누지 못하여 나아가 글을 써서 바쳤다.”³⁹⁾라는 제목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사냥할 때 앞장 서 나아가시는 우리 왕이시여,
봄바람 불 때 뒤를 따르니 호연한 기운 이는구나.
요란한 고각소리 속, 군령은 엄정하고
깃발 늘어선 곳, 장수들의 모의는 온전하다네.
천명의 기병 구름처럼 모여드니 산과 들 된 듯하고
만개의 아궁이에서 피는 연기 새벽하늘에 자욱하다.
은혜롭게도 장원에게 찰방과 같은 품계를 내려주시니
이같이 훌륭한 일,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해지리라.⁴⁰⁾

어수선한 진중에서 쓴 초서임에도 흐트러짐이 없는 방정한 체세를 유지할 수 있음은 그의 대범한 무인의 성정은 물론 상황의 대처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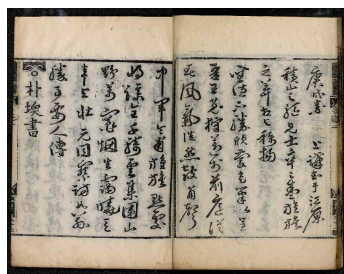
임창순은 그의 저술에서, “이 시기의 서체는 해서와 행서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초서를 즐겨 쓰는 이들도 많았다. 조맹부는 초서를 쓰기는 썼지만 그 보다 해서와 행서를 즐겨 썼다. 조맹부는 자기의 글씨가 鮮于樞만 못하다고 自認하고, ‘아무리 그 초서를 따라보려 했으나 되지 않았

38) 『海東名跡』은 조선 중종 때의 서예가이며 문신인 申公濟(1469~1536)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역대명가 45인의 글씨를 모아서 석각한 것을 탁본하여 전·후집 2책으로 엮은 것이다.

39) 『靈谷遺稿』, 七言律詩, “庚戌春陪世宗講武于江原積山時見士卒之盛旌旗之華相與稱揚聖德不勝欣慶走筆以呈.”

40) 『靈谷遺稿』, 七言律詩, “吾王蒐狩邁於前 扈從春風氣浩然 鼓角聲中軍令肅 旌旗點處將謀全 千騎雲集爲山野 萬竈烟生靄曉天 幸與壯元同察訪 如茲勝事要人傳.”

다.’고 하였다.” 그리고 “명조에 와서는 宋克(1327~1387), 解縉(1369~1415) 등이 초서를 잘 썼는데, 그 영향이 조선에 과급되어 崔興孝, 高得宗, 朴彭年 등의 글씨를 볼 수 있다.”⁴¹⁾ 고 한 것으로 보아 고득중의 서풍이 초서에서도 조맹부의 서풍과 다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8] 『海東名跡』에 실린 고득중의 필적

조맹부는 초기에 宋 황족의 신분으로 元에 출사하였기 때문에 漢人들 사이에 변절자로서 조롱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뛰어난 학식과 타고난 재능을 바탕으로 당시의 서풍을 위·진 서법으로 복고를 주창하게 되는데, 조맹부의 서예적 변신은 일종의 그의 정치적 변절을 희석하는 시도로 볼 수도 있겠고 이러한 그의 시도는 한편으론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서예적 성취에서 만년에 왕희지의 아류인 李嶠의 글씨에 천착함으로써 연미하고 세련미에 치우치게 된다. 송설체는 이러한 문약한 성격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훗날 퇴계는 당시의 서예풍조에 대하여 ‘요즘 조맹부와 장여필의 글씨가 성행하는데 모두 후학을 그르침을 면치 못했다’며 ‘습서’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후학을 경계하고 있다.

자법은 예로부터 심법의 말단이라서
글씨 연습에 유명한 필적을 필요로 할 건 아니지
창힐과 복회가 제작한 문자는 처음부터 신묘하였고
위·진의 풍류가 어찌 호방하고 확 트이지 않았겠는가?
걸음을 고쳐 배운 오홍에겐 자기 걸음 잊었을까 근심이오
정그림을 흉내 낸 동해에겐 껍데기만 이뤘을까 염려라네
그저 다만 점·획마다 모두 純一함을 간직케 할 뿐
세상에 떠도는 비방이나 칭찬 따윈 패넘치 말게나.⁴²⁾

41) 任昌淳, 『高麗末 朝鮮初の書藝』, 예술의 전당, 1996.

42) 이가원, 『퇴계시역주』, 정음사, 1987, 308쪽에서 원문을 전재하였고, 역주자의 해석과 다른 부분은 전적으로 필자의 생각을 반영하였음. 習書(近世 趙張書盛行 皆未免誤後學), “字法從來心法餘 習書非是要名書 蒼羲制作自神妙 魏晉風流寧放

한편 고득중은 변방인으로 조정의 대간들의 질서와 차별 그리고 당시 송설체가 풍미하는 세대 속에서도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위·진 고법의 길을 가고 있었다. 마치 뒤에 오는 후학들의 지남철이 되듯 퇴계의 지적을 미리 알고 있더라도 한 듯이 자신이 믿고 있는 고법의 변화속의 불변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한라산에 비긴 영곡 또는 원산이란 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武人의 기질의 고득중이 탐라성주로서 제주인의 자부와 초심을 잃지 않았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오세창은 『근역서화징』에서 고득중에 대하여 “항상 修文殿의 提學을 맡았으니 文筆이 모두 옛 법에 가까웠다”⁴³⁾고 하였고, 김석익은 고득중을 제주 서예의 祖宗으로 삼으면서 “우리 고을에서 글씨를 잘 쓰는 이는 判尹 高得宗이 제일이다. ‘弘化閣’이라 쓴 세 글자는 필력이 노련하고 굳세며, 예스럽고 기이함이 지금까지 간직되어 있다. … 모두 楷法으로 이름이 드러났고 …”⁴⁴⁾라고 하여 한결같이 해서에 정통했음을 들고 있다. 이것은 고득중의 성정에서 드러나는 위국애민의 도학자적 시문과 서예에 있어서 和而不同과 고법에 천착한 그의 기인적 서풍은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 초기 고득중의 시문과 서예를 살펴보았다. 특히 안평대군과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주도된 송설체로 대표되는 문화적 환경 속에서 고득중의 서예의 성취와 면모를 살펴보았다. 그가 주로 활동했던 조선 초의 상황이 물론 대부분의 경우 고려문화의 전통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경향을 띠었으나 고려시대에 수용되었던 송·원대 및 그 이전의 문화의 전통은 오래도록 참조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서예와 시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왕희지, 안진경, 구양순, 조맹부 등의 서예와

疎 學步吳興憂失故 效嘔東海恐成虛 但令點劃皆存一 不係人間浪毀譽。”

43) 李瑑薰, 앞의 논문, 2012, 34쪽.

44) 金錫翼, 「破閑錄」上, “我州善書高判尹得宗爲第一所書弘化閣三字蒼勁古奇至今猶存…俱以楷範稱…”

당송팔대가의 시문은 조선 말기까지 줄기차게 참조되었다.

조선초기의 문화예술계가 안평대군과 신진사대부들이 주도하는 송설체가 풍미하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도 고득중이 그 시류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자신만의 고법을 견지할 수 있었던 힘은 탐라성주로서의 자존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그 자존감과 위국충정과 애민선정의 발로가 그대로 그의 시문과 서예로 전이되어 서권기문자향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홍화각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노련하고 굳센 필치, 보관상의 문제로 마모가 심하여 판독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제몽유도원도」에서의 전체적인 서체의 흐름과 소활한 행간 활용 등을 볼 때 예스럽고 소활한 의취, 『해동명적』에 실린 초서 칠언율시에서 일관되게 위·진의 고법에 기반 한 고아하고 굳센 필치가 느껴진다. 조선 초기 서예는 송설체를 중심으로 성행하면서 왕희지체는 일시 그 주류에서 벗어나지만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었으니, 그 중심에 고득중 서예의 위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득중의 서맥은 조선 후기 한석봉으로 이어져 새로운 왕희지체가 부활하게 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론해 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득중은 조선 초기 일세를 풍미했던 유려하고 연미한 송설체를 무조건 추종 답습하기 보다는 오히려 당초 조맹부가 주창했던 위·진 고법의 본류에 천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득중의 서예는 동시기에 유행한 서풍과의 교섭보다는 고려시대 사경전통의 관습적 필법과 왕희지를 정점으로 하는 위·진의 고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득중의 서예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화이부동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화이부동의 기인적 서풍은 도학자적 위국애민의 시문과 표리를 이루어 이상적인 서예의 사표로 삼을 만하다.

아직은 자료의 부족과 연구자의 능력 부족으로 고득중의 서예의 직접적인 사승관계를 밝힐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주 필원의 태두로서 제주 서단에 끼친 영향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조선시대 제주의 서단의 원류 찾고 어떻게 후대 김양필·오점·김용정 등으로 이어지는지 제주명필의 맥통을 정리하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1. 원전

『禮記』 『論語』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四佳集』 『靈谷遺稿』 『海東名跡』 『心齋集』 『圓嶠筆訣』

2. 저서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200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서예문화의 역사』, 경인문화사, 2011.
김기승, 『한국서예사』, 동방서예연구원, 2006.
김봉현, 『濟州島流人傳』, 우당도서관, 2005.
손환일, 『고려말 조선초 조맹부』, 학연문화사, 2009.
안휘준, 『안견과 몽유도원도』, 사회평론, 2009.
안휘준, 이병한 편, 『몽유도원도』, 예경산업사, 1987.
오세창/동양고전학회, 『國譯 槿域書畫徵』 上, 시공사, 1998.
이가원, 『퇴계시역주』, 정음사, 1987.
임창순, 『국보』 12권, 예경산업사, 1985.
_____, 『고려말 조선초의 서예』, 예술의 전당, 1996.
제주문화원, 『증보탐라지』, 2004.
_____, 『지영록』, 2010.
包世臣, 정충락 옮김, 『藝舟雙楫』, 미술문화원, 1986.

3. 연구논문

김동진, 「제주인의 삶 - 제주史 순례⑨」, 『함께하는 도정』, 2009.
김올림, 「조맹부의 생애와 회화」,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4.
김창현, 「고려~조선초 탐라고씨의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7, 한국중세사학회, 1999.
안휘준, 「안견과 그의 화풍-「몽유도원도」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제38호, 진단학회, 1974.
윤봉택,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승연, 「근대 전북서단의 흐름에 관한 고찰」, 『서예학연구』 27, 한국서예학회, 2015.

이용훈, 「제주 서예 형성의 사적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高昌錫, 梁聖宗 譯 「[夢遊桃源圖]に對する 高得宗の 讚詩」, 『濟州島』 6, 耽羅研究會, 1989.

高橋公明, 「高得宗研究」, 『탐라문화』 10, 탐라문화연구원, 1990.

4. URL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9j3347a>.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24935>.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A%B3%B5_%EC%84%9D.

Abstract

Study on Ko Deuk-jong(1388~1452)'s Literary Works and Calligraphy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Oh, Chang-Rim*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literary works of Ko Deuk-jong who was born in Jeju and left a significant legacy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in calligraphy history.

Even though Ko Deuk-jong's calligraphy has the great importance, few studies about his works have been conducted. His calligraphy style was considered as no more than imitation of the Songxue Calligraphy Style as Prince Anpyong and Young Literateurs led the world of culture and art in and the Songxue Calligraphy Style dominated the early Joseon Dynasty. Ko got along with them while he remained unshakable in calligraphy style and literary works. Ko encourages readers to love people and serve country throughout the whole pages of 『Yeonggokyugo』 that was compiled by his descendants as a confucian scholar.

He didn't stick to the mainstream of the Songxue Calligraphy Style that is soft and gentle. Instead, he followed Wijingobeop style(popular during Wei and Qin Dynasty) that Zhao Mengfu advocated.

* Ph. D. student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t is assumed that Ko could overcome a disadvantage of location of Jeju, distant island from the mainland, thanks to high self-esteem and love toward Jeju people as a descendant of the governor of Tamna. Ko's achievement of fragrant and powerful literary works was possible from his love toward people and nation and the philosophy of harmonization and righteousness.

The Wijingobeop style was somewhat shadowed by the Songxue Calligraphy Style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but it was still one of the mainstream group. And Ko Deuk-jong led the Wijingobeop style. It is assumed that Ko's style was handed down to Han Seok-bong and contributed to revival of Wang Xizhi's style.

Key Words : Ko Deuk-jong, Young-kok, Honghwa-kak, Jeju calligraphy master.

교신 : 오창립 63125 제주시 신대로 70, 덕일빌딩 5층 502호

오창립 서법·서예연구원

(E-mail : japari@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6. 12. 31.

심사완료일 2017. 02. 05.

게재확정일 2017. 02. 07.